Symphony No. 8 in E♭ major, Op. 83

- □□

정보

Alexander Glazunov:

Symphony No. 8 in E♭ major, Op. 83
작곡가: Alexander Glazunov (1865–1936)
작품명: Symphony No. 8 in E♭ major, Op. 83
장르: 관현악 교향곡
작곡 시기: 1905–1906년
초연: 1906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 , 작곡가 지휘
초판 /전승: 1907년 Leipzig, M. P. Belaieff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Symphony_No.8(Glazunov)

Alexander Glazunov의 E♭장조 교향곡 제 8번, Op. 83은 1905년에 시작해 1906년에 완성된 네 악장 교향곡이다 . 1906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되었으며 , 글라주노프가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이기도 하다. 약 40분 동안 Allegro moderato, 애도하는 성격의 Mesto, 빠른 Allegro, 코랄과 대위법으로 확장되는 Finale가 이어진다. 후기 낭만주의의 큰 오케스트라를 사용하지만 , 음향을 무작정 키우기보다 러시아적 선율, 독일식 형식, 정교한 관현악 색채를 한 작품 안에 균형 있게 묶는다.

개요
글라주노프의 제 8번은 19세기 러시아 교향곡 전통이 20세기로 넘어가는 문턱에서 만들어졌다 .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 배운 관현악 감각과 독일 음악에서 익힌 대위적 사고가 결합되어 있지만, 작품은 특정 민족 양식의 표본으로만 들리지 않는다. 넓은 선율이 먼저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금관과 목관, 현악이 서로 다른 색을 겹치며 형식을 앞으로 밀어 간다.

이 곡을 이해하는 가장 쉬운 길은 네 악장의 서로 다른 무게를 따라가는 것이다. 첫 악장은 넓은 주제와 대위적 전개로 출발하고, Mesto는 반복되는 금관 화음과 한숨 같은 선율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만든다. 세 번째
악장은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음향을 가볍게 돌리고, Finale는 엄숙한 코랄에서 출발해 점점 큰 화음과 대위법으로 나아간다.

작곡과 초연
작곡 연도는 1905년으로도, 1905–1906년으로도 전해진다. 글라주노프는 1905년에 작품의 주요 악장을 구상하고, 이듬해 관현악화와 최종 정리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1905년 러시아의 정치적 격동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의 갈등이 작곡 시기와 겹치지만, 제 8번을 혁명을 묘사한 표제 음악으로 볼 근거는 없다. 작품의 어두운 표정은 특정 사건의 삽화보다 조성과 관현악의 선택에서 나온다.

초연은 1906년 12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작곡가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 러시아 제정기의 달력과 자료 표기 방식에 따라 날짜가 다르게 전해지므로 월 단위로 소개하는 편이 안전하다. 글라주노프의 제 9번은 1910년 무렵 착수되었지만 미완성으로 남았다. 따라서 제 8번은 그가 마지막으로 완성해 세상에 남긴 교향곡이라는
의미에서 마지막 작품이다.

편성
제 8번은 후기 낭만주의의 대편성을 사용한다.

목관: 플루트 3대 (제 2는 알토 플루트, 제 3은 피콜로 겸임), 오보에 2대, 잉글리시 호른, 클라리넷 3
대 (제 3은 베이스 클라리넷 겸임), 바순 2대, 콘트라바순
금관: 호른 4대, 트럼펫 3대 (제 3은 알토 트럼펫 겸임), 트롬본 3대, 튜바
타악기: 팀파니, 트라이앵글 , 심벌즈, 큰북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출판사와 악보 목록은 겸임 악기의 수를 조금 다르게 세지만, 기본적인 음향 구성은 같다. 잉글리시 호른과 베이스 클라리넷은 낮은 목관의 어두운 색을 보태고, 피콜로와 알토 플루트는 높은 음역의 빛을 바꾼다. 금관은 Mesto의 무거운 화음과 Finale의 장엄한 종지를 지탱하며, 하프가 포함된 공연 편성에서는 넓은 화음 사이에 투명한 울림이 더해질 수 있다.

네 악장

1. Allegro moderato
첫 악장은 E♭장조의 넓은 선율로 시작한다. 현악과 목관이 긴 호흡을 유지하는 동안, 악기는 선율의 일부를 서로 넘겨받으며 큰 구조를 세운다. 약 5분쯤 지나면 푸가에 가까운 대위적 장면이 나타나고, 여러 성부가 주제를 겹쳐 부른다.

이 대위법은 곡을 학술적인 연습곡처럼 만들지 않는다. 푸가의 긴장이 올라간 뒤 글라주노프 특유의 주제 반복과 새로운 음색으로 되돌아오며 , 선율은 다시 넓은 러시아적 호흡을 얻는다. MusicWeb의 Paul Shoemaker는 이 흐름을 Saint-Saëns의 선율과 Dvořák 교향곡의 점층적 조화에 비유했지만 , 이러한 비교는 작품의 음향을 설명하는 청취의 언어다.

첫 악장의 핵심은 거대한 주제가 한 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선율은 관현악의 여러 구역을 통과하면서 더 짙어지고, 금관이 앞에 나설 때도 현악과 목관의 세부가 사라지지 않는다. Allegro moderato 라는 빠르기는 성급한 질주보다, 넓은 선율과 복잡한 전개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속도를 마련한다.

2. Mesto

Mesto는 이탈리아어로 슬픔과 애도의 표정을 암시하는 표지다. 제 8번에서 가장 느리고 어두운 악장으로, 반복되는 금관 화음이 무거운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이로 한숨처럼 이어지는 선율이 흐른다. 화음은 늘 같은
힘으로 울리지 않고, 목관과 현악이 그 틈을 메우며 감정을 안쪽으로 끌어들인다 .

MusicWeb은 이 악장을 글라주노프의 교향곡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단일 악장으로 평가했고, ClassicsToday 는 거친 금관의 발언이 기억에 남는다고 평했다. 이러한 강한 표현은 특정 평론의 감상이다. 음악 자체는
비탄을 한 방향으로 몰아붙이기보다 , 긴장된 화음과 조용한 선율을 번갈아 놓으며 슬픔의 시간을 늘인다.

Mesto가 1905년의 사건을 직접 그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작곡 시기의 불안과 작품의 어두운 음향이
겹쳐 들릴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금관이 단단한 수직선을 만들고, 그 위에서 목관과 현악이 작은 흔들림을
이어 간다는 음악적 사실이다. 종결부에서는 화음이 장중하게 가라앉으며 다음 악장을 위한 침묵을 마련한다.

3. Allegro
세 번째 악장은 빠른 Allegro로, 앞선 Mesto의 무게를 바람처럼 흩어 놓는다. 목관은 짧은 동기를 재빨리 주고받고, 현악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음향의 방향을 바꾼다. 트라이앵글과 다른 타악기의 반짝임이 큰 관현악 안에 작은 빛을 만든다.

MusicWeb의 평론은 이 악장의 바람을 Elgar 교향곡 제 2번의 론도와 비교했다. 두 작품이 같은 음악적 계보에 있다는 뜻이라기보다 , 빠른 음형과 관현악의 회전이 비슷한 이미지를 불러온다는 비평적 비유다.
글라주노프의 Allegro는 서정적인 선율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짧은 호흡으로 잘라 여러 악기에 나누어 준다.

악장 끝으로 갈수록 음형의 밀도가 커지지만, 소리는 무겁게 쌓이기보다 방향을 바꾸며 빠져나간다 . 이 가벼운 회전이 Mesto와 Finale 사이에서 필요한 환기를 제공한다. 세 번째 악장의 명료한 리듬이 있기에 마지막
악장의 장대함도 갑작스러운 과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귀환처럼 들린다.

4. Finale: Moderato sostenuto

피날레는 엄숙한 코랄을 연상시키는 화음으로 시작한다. 느린 Moderato sostenuto의 호흡 속에서 주요
주제가 여러 성부에 나타나고, 다른 선율이 그 곁을 따라간다. 처음에는 단정한 찬가처럼 들리지만, 반복과 대위적 겹침이 더해지면서 음악의 공간이 크게 확장된다.

주요 주제는 한 성부에 고정되지 않는다. 목관과 현악, 금관이 차례로 주제를 받아 연주하고, 카논에 가까운 모방과 푸가적 장면이 긴 결말을 조직한다. Belcanto의 해설은 이 과정을 코랄에서 승리의 화음으로 나아가는 흐름으로 묘사한다. “승리 ”라는 말은 해설의 정서적 표현이지만 , 악보에서 주제가 점점 더 많은 성부로 퍼진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간에는 금관과 타악기가 무게를 더하고, 하프와 목관이 그 사이에 빛을 흘린다. 모든 순간이 큰 소리로
향하는 것은 아니다. 낮은 현과 바순이 주제를 붙들 때도 있고, 높은 목관이 선율을 가늘게 이어 갈 때도 있다. 마지막에 E♭장조의 화음이 넓게 울리면, 앞선 세 악장에서 흩어졌던 선율과 리듬이 하나의 장면으로 모인다.

선율과 대위법의 결합
글라주노프는 러시아 음악에서 흔히 기대하는 길고 노래하는 선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선율을 여러
성부가 다루도록 만든다. 첫 악장의 푸가, 피날레의 카논과 모방은 주제를 잘게 해체하는 대신 넓은 선율의
윤곽을 보존한다. 그래서 관현악이 복잡해져도 음악은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이 결합은 제 8번의 원숙함을 만든다. 금관이 장엄한 화음을 내고 현악이 촘촘한 움직임을 펼칠 때, 목관은
선율의 방향을 알려 준다. Mesto에서는 이 방법이 슬픔의 무게를 늘이고, Allegro에서는 같은 방법이 음향을 빠르게 회전시킨다 . Finale에서는 주제를 공동의 노래처럼 넓히며 결말을 마련한다.

러시아 교향곡 전통 속에서
제 8번은 글라주노프가 림스키코르사코프에게 배운 관현악 색채와 서유럽의 대위법을 함께 다룬다. 그러나 이 작품을 특정 학교의 절충으로만 부르면, 네 악장 사이의 시간 감각을 놓치게 된다. 그는 Mesto에서 금관의
무게를 오래 유지하고, Allegro에서는 짧은 음형을 가볍게 흩으며, 피날레에서는 다시 긴 호흡으로 돌아온다.

Gramophone의 David Fanning은 제 8번이 글라주노프의 제 4번보다 조금 더 관습적이며 Elgar의 교향곡을 연상시키는 러시아적 사촌처럼 들린다고 평했다. 반면 Schott의 소개는 이 곡을 한 세대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높이 평가한다. 서로 다른 평가는 작품이 전통을 지키는 방식과 야심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여 준다. 어느 한 문구가 음악을 대신하지는 않으며, 반복해 들을수록 대위법과 관현악 색채가 더 잘 드러난다는
점이 공통된 청취 단서다.

Stravinsky의 E♭장조 교향곡과 제 8번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다는 서술도 있다. 하지만 두 작품의 작곡 진행 시점과 실제 악보를 세밀하게 대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8번을 직접 모델로 부르기는 어렵다. 선율이나
관현악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더라도, 여기서는 20세기 초 러시아 음악에서 두 작품이 비교되어 왔다는
정도로 남겨 둔다.

전승과 주요 레코딩
IMSLP는 1907년 Leipzig의 M. P. Belaieff가 Op. 83 초판을 냈다고 기록하며, 1912년 포켓 스코어와 후대 Kalmus 재인쇄도 소개한다. Schott의 현재 연구용 악보는 Belaieff Musikverlag 판을 바탕으로 하며, 네 악장과 약 40분의 시간을 제시한다. 연주 시간은 반복과 지휘자의 선택에 따라 40분 안팎에서 조금 달라진다.

Valeri Polyansky / Russian State Symphony Orchestra (Chandos CHAN9961):
2002년 모스크바 녹음으로, 제 8번은 약 40분 1초다. MusicWeb의 Paul Shoemaker는 첫 악장의

넓은 선율과 푸가, Mesto의 장송풍 금관, 세 번째 악장의 바람 같은 움직임, 코랄에서 장대해지는 Finale를 높이 평가했다.
Tadaaki Otaka / BBC National Orchestra of Wales (BIS-CD1378): Gramophone의 David Fanning은 연주가 애정 어린 표현을 유지하고 BIS의 음향이 따뜻하게 섞인다고 평했다. 제 8 번을 반복해서 들을수록 인상이 커지는 작품으로 소개하는 음반이다.
Alexander Anissimov / Moscow Symphony Orchestra (Naxos 8.553660): ClassicsToday는 약 43분의 연주에서 회오리 같은 Scherzo, 거친 금관이 만드는 Mesto, 푸가와
대위법을 활용한 Finale를 언급한다. 큰 공간감과 다소 거친 녹음의 질감이 함께 남는다.
Khaikin / Leningrad Philharmonic (1953년 녹음): MusicWeb의 복원 음반 평은 약 41분 20초의 역사적 기록으로, 생생한 목관과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은 결말을 들려준다고 설명한다. 복원
과정의 편집 이음매와 당시 녹음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요 자료

IMSLP, Symphony No. 8, Op. 83: 조성 ·악장 ·초판 ·파트와 공개 악보.

Schott, Symphony No. 8 in E♭ major: 1906년 표기, 편성, 약 40분 연구용 악보와 작품 소개.

MusicBrainz, Symphony No. 8: 1905–06년 작곡 관계, Belaieff 1907년 출판과 악장명.

Gramophone, Glazunov Symphonies Nos 4 and 8: Otaka/BBC National Orchestra of Wales
음반 평.

MusicWeb International, Polyansky: 제 8번 악장별 청취 단서와 Chandos 녹음 정보.

MusicWeb International, Khaikin: 1953년 역사 녹음의 해석 ·복원 정보.

ClassicsToday, Glazunov 5 & 8: Anissimov/Moscow Symphony Orchestra 음반 평.